

전북교육정책 지지도 82%

전북교육청, 교직원 · 학부모 등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년비 5.4%p ↑
학력신장 74%, 교권 보호 75%, 독서 · 인문교육 84.7% “동의한다”

전북교육정책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 전북교육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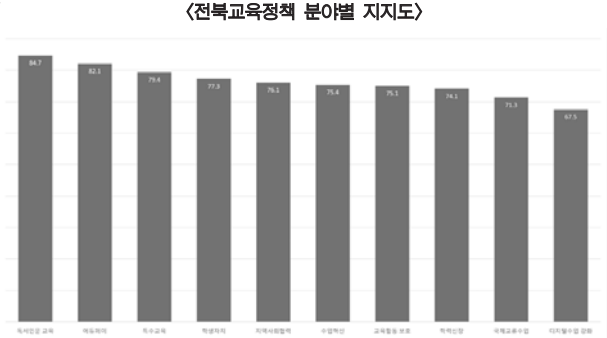
이 조사는 도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학부모(일반 도민 포함) 4,513명(63.3%), 교직원 2,620명(36.7%) 등 총 7,133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가 전북교육 정책기조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69.8%는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정책기조 동의는 5.4%p, 긍정 평가는 2.9%p 상승한 것이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74%가 동의했고, 69%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력신장 정책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 1위(38.9%)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부활한 것은 잘한 것 같다’, ‘평가를 교육의 과정으로 활용하자’, ‘전북 학생의 학력이 더 높아지길 바



〈그라픽=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라다’는 의견과 함께 ‘평가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등의 지적도 있었다.

또한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이 절실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침해를 막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교권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교원들은 교권 보호(36.2%)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 과제로 꼽기도 했다.

더불어 독서 · 인문교육(84.7%)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전북에듀케이(82.1%), 특수교

육(79.4%), 학생자치(77.3%), 지역사회협력(76.1%)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끝으로 교권 보호(69%), 독서인문교육(76%), 수업혁신(68.6%), 국제교류(66.8%), 교육 협력(70%) 등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고, 나아가 교육가족의 질책과 충고에 더 귀 기울여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신경 채널 모사한 압력센서 개발

전북대 · 중국 우한기술대 공동연구팀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와 중국 우한기술대학교 공동연구팀이 신경계에서 이온이 이동하는 현상을 모방해 고성능의 소프트 압력 센서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정창규 교수(사진) 및 우한기술대 장용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재료 및 화공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인팩트팩터 13.4, 상위 3.1%)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고분자와 탄소 응용 공정을 이용해 생체의 신경 이온 채널을 모방한 하이드로겔 기반 이온소자를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기존 이온 소자 압력센서의 민감도 및 성능 한계를 높였으며, 에너지 하베스팅, 전기화학적 다이오드 소자 등을 구현해 다양한 실용성도 제안했다.

연구에 참여한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는 “이번 연구는 이온의 움직임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온 소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존 연구된 하이드로겔 소자를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3~14일까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린 ‘제3기 전주학생의회 동학농민혁명 민주시민 역량강화 워크숍’ (사진=전주교육지원청 제공)

전주학생자치, 역사 · 문화예술 두 날개로 날아올라

전주학생의회 ‘동학혁명 민주시민 역량강화 워크숍’

전주학생자치연합회 ‘학생문화예술제’ 잇따라 열려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기)은 지난 13~15일 3일에 걸쳐 전주학생의회 동학농민혁명 민주시민 역량강화 워크숍과 전주학생자치연합회 학생문화예술제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13~14일까지 이틀간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린 ‘제3기 전주학생의회 동학농민혁명 민주시민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정신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은 전주 관내 초 · 중 · 고교 대표 학생의원 24명이 참여해 정책 제안서 작성과 동학농민혁명박물관 체험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사적 통찰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길렀다.

15일에는 전주학생자치연합회 ‘아르테’가 주관하는 전주학생문화예술제

가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밴드와 댄스 분야 본선에 오른 총 14개 팀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학생들의 열정과 끼를 한껏 발산했다. 특히 진행부터 무대 기획까지 전 과정이 학생 주도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밴드 공연(7팀)과 댄스 공연(7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연의 완성도와 팀워크,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밴드 분야는 ‘전북중학교 천상’ 팀이, 댄스 분야는 ‘완산고등학교 밀알’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기 교육장은 “학생자치는 학교라는 문턱을 넘어 ‘삶의 무대’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역사와 문화예술이라는 두 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현장체험학습에 심각한 부담”

전교조 전북지부 도내 교사 250명 대상 설문조사서

대다수 교사들이 응답…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회의적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월 전북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대다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심각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 가운데 ‘아주 많은 부담’ 또는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8%를 넘었고 부담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였다. 교사들이 부담을 갖는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91%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교사도 67%에 달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 학교 담임교사들이 책임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회의

적이었다. ‘(법을 개정했지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다녀올 수 없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았고, ‘불안과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29%로 나왔다. ‘이정다면 안심하고 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끝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80%의 교사들이 ‘(아무리 관리자가 동행하고 보조인력 따라와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없다’는 의견을 냈었다.

전북지부는 “개정된 학교안전법 시행 일주일만 앞두고, 교사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하다”며 “교사들의 부담과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사학기관

행정 · 법인실장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전주치명자산산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사학기관 행정(법인)실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사학기관 행정 · 법인실장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사학기관과 함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기희경 Key&Plus 컨설팅 대표의 ‘궁정관계를 위한 소통리더십’, 권미람 재무설계사의 ‘은퇴 이후 노후설계’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사학 업무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해 관리자들의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학은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라며 “차별없는 공교육 실현과 공 · 사립 균형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사학기관에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조경학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추가 지정돼

우석대학교 조경학과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고용정보원이 시행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교육 · 훈련과정’에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 · 훈련을 이수한 뒤 실무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검정형 자격에 비해 취득자와 기업 모두로부터 실효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우석대 조경학과는 재학생들이 졸업 전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정환 조경학과장은 “이번 훈련기관 지정을 통해 우리 학과는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실무 중심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학생들이 재학 중 자격 취득은 물론 졸업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서 재활치유농업

기술 확산 위한 공동 워크숍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최연우 학과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뇌졸중 후 편마비 후유장애 개선에 위한 재활치유농업 기술 실증 및 확산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권역(전라권, 충청권, 경상권, 제주권)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지난 12일 전체 권역이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라권역의 미륵산 치유농장 이혜숙 대표가 참여해 재활치유전문농장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심리생리 측정 도구로 활용 중인 ‘바이브라이미지’ (마인드아이) 김진관 대표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각 권역의 연구 현황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전라권은 실내활동 중심의 재활치유체조 영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성과를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 7가지 재활치유 동작으로 구성,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시기에도 요양시설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실제로 전라권 연구팀은 전주보훈요양원의 대상자 및 시설 관계자와 함께 해당 영상을 활용한 활동을 실시하며, 재활치유농업에 대한 현장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 확산을 위한 실천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농장주들과 연구진은 제주권의 선진 치유농장 사례를 현장 견학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재활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대학교는 2025 글로벌대학 본지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문 시도의원과 소통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2025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성과, 동문 시도의원과 공유

전주대, 성공 추진 위해 소통 간담회… 본지정 위한 협력 당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 글로벌대학 본지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동문 시도의원과 소통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본교 출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이정린 · 진형석 의원, 전주시의회 최명철 · 이국 · 이상국 · 채영범 · 최명철 · 최지은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콕이구 기획처장이

2025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성과를 설명하고, 본지정을 위한 대학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지역과 상생하며 대학의 혁신을 이끌어 낼 글로벌대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문 시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한 동문 시도의원들은 모교의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성과를 축하하고, 본지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주대학교가 지역 발

전을 선도하는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문 시도의원들과 글로벌대학 본지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성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년 연속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마스터 교사 양성 · 교원 디지털기반 수업 전문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텔 SFI 마스터 코치 양성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텔과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인텔 SFI(Skills for Innovation)는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도구 기반 수업 혁신에 관심있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인텔의 수업 혁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스터 코치를 양성해 우수 수업사례 개발과 수업 혁신 프로그램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디지털기반 수업 설계 역량 신장과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사례 발굴 및 확산에 한층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디지털기반 수업혁신 마스터 교사 양성 과정 연수’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기반 수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14일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했고, 8월 중 2차 연수를 통해 디지털기반 수업혁신 마스터 교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